

#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KIA '좌완 강팀' 거듭난다



선발 양현종·이이리·파노니·놀린에 전역 김기훈 가세  
"같은 값이면 좌완" 충암고 윤영철 등 신인 대거 영입

‘호랑이군단’이 좌완 강팀으로 거듭난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귀했다. 특히 불펜의 ‘좌완 가담’은 KIA의 오랜 고민이었다.

올 시즌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일단 선발진부터 4명의 좌완으로 채웠다.

양현종과 이이리 두 투수 선수에 토마스 파노니와 선 놀린 두 외국인 투수까지 모두 왼손으로 공을 던진다.

불펜 옵션도 늘었다. 지난 시즌에는 사실상 이준영 나홀로 좌완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김정빈, 김유신, 최지민 등이 불펜에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시즌 막판 새로운 좌완 자원이 가세를 준비하고 있다.

21일자로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하는 김기훈이 바로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중국 감독은 “전역하고 모레부터 등록해서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생각이다. 상무에서는 선발이었는데 복귀하면 중간 투수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은 부담이 덜 되는 편한 상

황에서 이닝을 소화해봐야 할 것 같다. 자신 있고 좋은 피칭을 한다면 타이틀한 상황에서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단했을 때는 자신감도 넘치고 구위도 좋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다. 멘탈과 실력이 좋아졌다고 하니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멘탈이 중요하니까 자신감 있게 투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불펜에서 복귀 시즌을 보내지만 김기훈은 선발 자원으로도 꼽히는 만큼 내년 시즌 좌완 선발진은 견고할 전망이다.

여기에 ‘아기호랑이’들도 좌완 경쟁에 새 바람을 예고한다.

KIA는 최근 진행된 2023 신인드래프트에서 예상대로 충암고 좌완 윤영철을 1라운드 선수로 선택했다.

박동원과의 트레이드 당시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양도했던 KIA는 3라운드에서 휘문고 내야수 정해원의 이름을 불렀고, 이어 4라운드와 5라운드에서 각각 마산 용마고 투수 김세일과 공주고 투수 박도규를 선택했다. 두 투수 모두 왼손으로 공을 던



왼쪽부터 양현종, 이이리, 파노니, 놀린.



진다.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윤영철과 함께 미래 자원까지 더해 KIA는 좌완층을 두텁게 했다.

“좌우를 나눠서 뽑은 건 아닌데 좌완 투수들이 우선 뽑혔다”며 “같은 값이면 좌완”이라는 게 KIA 스카우트팀의 이야기.

김세일은 KIA가 가능성을 보고 욕심을 낸 ‘원

석’이다. 다듬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일찍 낙점했다.

189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높은 타점의 강속구가 강점인 김세일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구사한다.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좌완 파이어볼러’로 설명할 수 있는 김세일에 대해 내부에서는 ‘좌완 광정철’로도 언급하기도 한다.

박도규는 ‘왼손 스페셜리스트’로 기대하는 자원

이다.

최고 145km 공을 던지는 광도규는 슬라이더 유형으로 던지면서 디셉션이 좋다. 구위와 무브먼트가 뛰어나서 직구만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에비역’ 김기훈의 가세와 함께 KIA의 좌완 마운드 다지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강인 어떻게 쓸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2차례 평가전을 갖는 축구대표팀 손흥민(오른쪽)과 이강인이 20일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벤투 감독, 18개월만에 합류한 이강인 다양한 포지션 점검 쳐진 스트라이커·중앙 MF·측면 공격수·프리카 훈련 지켜봐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이강인(22-마요르카)을 18개월 만에 축구대표팀에 다시 부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첫 훈련부터 이강인의 활용법을 여러모로 점검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1시간 30분가량 훈련을 진행했다.

대표팀은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며 이달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전날 소집됐다.

벤투호는 2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맞붙고 나서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대결한다.

이번 두 경기는 26명의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기 전 해외파까지 총동원해 치르는 마지막 테

스트 무대다.

이강인에게도 의미가 크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은 지난해 3월 일본과의 평가전(0-3 패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이강인에게는 20일 오전 훈련이 18개월 만에 참여한 A대표팀 훈련이었다.

이날 훈련은 벤투 감독이 소집한 26명 중 20명이 함께했다.

벤투 감독은 처음에는 이강인을 소속팀 마요르카에서처럼 최전방 손흥민(토트넘) 아래 쳐진 스트라이커로 두고 양 측면에 권창훈(김천 상무)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배치했다.

이후 이강인을 이재성(마인츠)과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뒀다가 마지막에는 왼쪽 측면으로 옮기고

최전방에 황희찬, 오른쪽에 손흥민을 세워 훈련을 이어갔다.

이강인은 짧은 시간 동안 쳐진 스트라이커, 중앙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로 두루 훈련했다.

끝으로 페널티아크 앞에서 프리킥 연습도 했다. 이강인이 왼발, 황희찬이 오른발로 프리킥을 전담했고, 손흥민은 양발로 킥을 했다.

벤투 감독은 훈련이 끝난 뒤 잠시 이강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13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소속팀에서 활용법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지만, 대표팀에서 활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해 이번 소집 기간 이강인을 어떻게 시험할지 관심을 끌었다.

이날 훈련이 황희찬, 조규성, 나상호 등 공격수들은 불참한 가운데 이뤄지긴 했으나 이강인과 손흥민의 동반 출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다.

지금까지 A매치 6경기를 뒀던 이강인은 데뷔전이었던 2019년 9월 조지아와 친선경기에 이어 같은 해 10월 스리랑카와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 손흥민과 나란히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함께 그라운드에 있었던 마지막 경기는 2020년 11월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다. 당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고, 이강인은 후반 31분 교체 투입됐다.

/연합뉴스

### 광주FC 오늘 우승 확정 짓나

#### 2위 안양 경기에 관심 집중

광주FC의 우승 샴페인이 터질까? 광주가 운명의 21일을 맞는다. 이날 광주는 K리그2 2022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도 있다. 광주의 경기는 없지만 2위 FC안양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K리그2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안양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광주가 그대로 1위 자리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광주는 39라운드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이순민과 산드로의 골로 2-1 승리(승점 78)를 거두면서 우승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40라운드 휴식기 팀이 되면서 한 주 경기 없이 쉬어갔다. 여기에 다음 41라운드 경기가 ‘월요일 경기’로 편성되면서 26일 오후 7시 30분 안산그리너스와 홈경기를 치른다.

반대로 광주에 막힌 안양은 승점 78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충남아산과 40라운드 경기를 치렀고, 21일에는 대전하남시흥과의 순연 경기가 예정됐

다. 25일에는 서울이랜드와 원정경기도 치러야 한다.

일단 대전전이 ‘운명의 승부’다.

안양은 앞선 아산과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승 꿈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대전과 경기에서 패배는 물론 무승부를 기록해도 광주의 우승이 확정된다.

실날같은 희망을 살려야 하는 안양과 2위라도 노려봐야 하는 대전의 승 막히는 힘겨투기가 예상된다.

이날 만약 대전이 승리를 거둔다면 2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4위 대전(승점 58)이 안양전에 승리하면 일단 경기가 없는 3위 부천FC(승점 60)과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안양(승점 63)과는 승점 2점 차이가 난다. 대전이 1경기를 덜 치른 만큼 2위 싸움에 불이 붙게 된다.

K리그2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21일, 광주 선수들은 각자 집에서 안양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휴식 일정을 보내고 있는 광주 선수들은 22일 훈련을 재개한다.

/김여울 기자 wool@